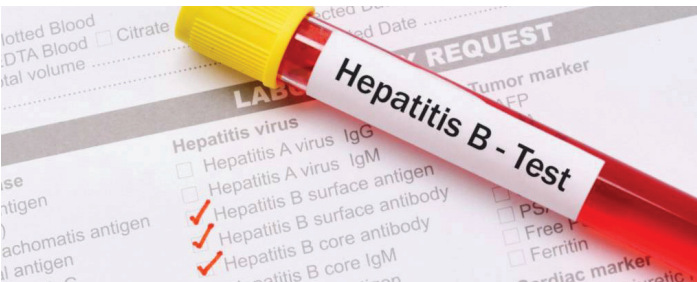


조기 진단이 핵심

온 가족이 HBV 감염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성인이 최소 한 번은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에게 3가지 항목의 HBV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B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HBsAg 양성(+)은 HBV에 감염되었음(B형 간염 보유자)을 의미합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체 (anti-HBs):
HBsAg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anti-HBs 양성(+)이면 HBV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B형 간염 코어 항원에 대한 총 항체 (anti-HBc):
Anti-HBc 양성(+)은 과거 또는 현재 HBV 감염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세요

만약 3가지 테스트 모두에서 양성이면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은 6개월 마다 3회 접종받으면 평생면역이 됩니다. 성인은 1개월 간격으로 두 번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B형 간염 백신을 HBV 감염에 의한 간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항암 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칩시다.



옥색(Jade)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옥색 제이드 리본(Jade Ribbon)은 세계곳곳의 B형 간염과 간암 환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지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 간 센터

**Asian Liver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780 Welch Road, CJ 130
Palo Alto, CA 94304
전화번호: 888.311.3331
팩스: 650.736.8001
liver.stanford.edu
#JOINJADE

KOREAN EDITION
© 2024 ASIAN LIVER CENTER

HBV를 알자



B형 간염과 간암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ASIAN LIVER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MEDICINE

B형 간염에 관한 침묵 깨기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간암, 간경화, 간기능부전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27명당 1명은 만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성인들로, 이들은 출생 첫 날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지 않아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받은 적이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4명 중 1명은 간암이나 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지만, 조기 진단, 적절한 모니터링, 치료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B형 간염에 이미 감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B형간염 감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위험합니다. 간 기능 혈액 검사조차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황달(소변색이 짙어지고,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HIV와 유사한 전염경로



산모에서 신생아에게로의 수직감염

한국인들의 경우 B형 간염은 흔히 만성적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분만 중에 전염됩니다.



혈액을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감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상처와 상처의 접촉
- 면도기와 칫솔의 공유
- 문신기구, 피어싱, 또는 마약 주사를 위한 바늘의 재사용
- 의료용 주사기나 바늘의 재사용



성관계를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B형 간염 감염자와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경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낙인과 차별이 발생합니다.

HBV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식을 함께 먹거나 물을 함께 마실 때
- 식기류나 음료잔을 함께 사용할 때
- 일상적인 접촉
- 기침이나 재채기
- 포옹이나 키스
- 모유 수유
- HBV는 유전병이 아닙니다

HBV에 감염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만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학교, 또는 다른 일상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B형 간염에 감염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검사

건강하다고 느껴져도 간 손상과 간암을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다음 검사를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주기	검사	검사 목적
6 개월	ALT AFP	간 손상여부 간암
1 년	HBV DNA level	바이러스 활성화도
1 년*	간초음파	간암

* 간경변이나 간암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매 6개월마다 할것을 권장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간암도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

B형 간염은 완치를 위한 치료법이 없지만, 현재 추천되는 1차 경구 항바이러스 약물(엔테카비르 entecavir/테노포비르tenofovir)은 간암과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간 손상을 치료하고 심지어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med.stanford.edu/liver/resources/online-treatment-tool.html)

또한 암 등으로 면역억제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B형 간염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고, HBV DNA 농도가 200,000 IU/mL 이상인 임신부로부터 태아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가 권장됩니다.



A형 간염
백신 맞기



술 안 마시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가족들과 배우자가 B형 간염 테스트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 B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만약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는 태어난 지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HBIG)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